

[칼럼01:Re]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참 오랫동안 관심을 받았던 칼럼입니다.
제 첫 칼럼이라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편집을 다시 거쳐 업로드 합니다.

저는 정말 국어에 재능이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지인들이 정말 많이 놀랍니다.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국어를 19점까지 받아보았습니다..
그것도 고3 1학기 중간고사에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수능 1등급까지 맞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걸까요?

천천히 저의 여정을 따라와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참 못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 친구들보다 진도를 빨리 빼는 편이었지만,
국어는 영... 잘 감이 안 왔습니다.

고3 : 18수능

중학생 초등학생 때는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저냥 잘 넘어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어를 못 할뿐더러 어떻게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으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국어 내신은 **항상 4~5등급**이었고 모의고사는 어찌다가 **3등급, 대개 4~5등급**이었죠.

김동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기삼이**”(기껏 해야 **삼등급**) 가 바로 저였습니다.

심지어 고3 1학기 중간고사는 19점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 시험이었는데 말이죠.

고삼 때,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하기에 그때 처음으로 국어 공부라는 것을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의 90% 가까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는 농어촌 학교였기에 선생님께 국어 공부법을 여쭙 봐도 도움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냥 예쁜 문제지 사라더군요. 그게 제일 유명할테니까.

저는 기출의 중요성을 하나도 몰랐고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글을 이해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비같은 수험생 커뮤니티를 하면 됐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입시 정보가 너무도 부족하여 이런 사이트의 존재도 잘 몰랐고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감이 뭔지도 재수 때 알았습니다.

(‘봉소’가 실제 이름이란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친구가 발췌독을 해보라길래 발췌독을 해봤고,

매삼비 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했지만

시간에 맞춰서 풀 수 없을 뿐더러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6월 국어 5등급”

해도 안 오르고, 해도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7월쯤에는 거의 포기를 하였고 이후 수능 때까지 국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9월 국어 5등급”

그러다 수능 전 날(18학년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태 풀었던 독서 지문들 중에서 지문에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있었는가?**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장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7,8월까지 공부한 평가원 지문 속엔 그 어떤 문장도
심각하게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가 가능한 문장들로 구성돼있는데

왜 이들이 모인 지문은 이해를 못할까요?

어차피 읽을 것 없으니, 수능 날 처음으로 시간에 개의치 않고 처음부터 차분히 모든 글을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수능 국어 높은 3등급 (백분위 87%)

그 때 제가 문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

문법을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전 5에서 2가 되는 기적을 보이는 거였겠죠.

8월~11월 공부를 거의 안 한 채로!

그렇지만 수학 5등급이라는 놀라운 점수에 저는 재수 확정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전 수능 공부를 고3 때 제대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틀린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주위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재수 : 19수능

재중에서 재수를 하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5에서 3은 쉬운데 그 이후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확실히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압도적으로 '수능'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중 국어 선생님들도 그냥 지문을 설명해 주실 뿐이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고 왜 여기에 근거가 있는지 말해주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가야지...' 라는 생각에 고민하던 와중, 4월에 메가패스를 구입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클래스부터요.

그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첫 강의에선 깨달음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국어 지문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가 맞는 태도라는 것에 확인을 받으며, "호기심"은 이를 수월하게 해준다는 팁을 얻었죠.

선생님의 말씀대로 매일 아침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국어가 제일 부족했기에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은 국어에 쏟았고 매일 호기심을 가지며 반응하는 국어를 반복했습니다.

지문을 풀며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얼마나 지문에 몰입하는가!

온몸으로 지문의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문학의 경우 화자와 공감하며 상황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근거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문학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경험이!

문법은 거의 노베이스였기에, '떠먹는 국어문법' 등의 개념서를 다시 노트에 정리해보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처음 감을 잡을 땐 하루 두 세시간씩 머리를 쥐어 짜며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배끼는 건 안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되는가.

그 과정 속에서 개념들 간의 유기성에 대한 이해는 높아집니다.

130페이지 내외의 주간지인 '연필통'을 일주일에 많으면 두 개씩 해치웠습니다. 재중 선생님의 수업 시간엔 김동욱 선생님께 배운 태도들을 적용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정말 몰아치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호기심이 정말 생겼으며, 그냥 국어가 제일 재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국어 공부 안하고 물리만 공부하기로 소문났던 내가 국어를 제일 재밌어 한다고?!
수험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부사는 '매일 꾸준히'입니다.
이 당시 저의 국어 공부는 항상 이 부사로 수식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6월 모의고사 직전 즈음 바탕 모의고사 1회차를 보았습니다.
시간 재고 OMR카드에 마킹하며, 일부러 패널티를 주기 위해 공부에 지쳐 피곤에 절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결과는 94점

더 놀란 건 해설 강의에서 **1컷이 80 초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만일 이게 수능이라면 **적어도 백분위 99**였겠죠.
저도 믿기지 않아 복기해보니 찍은 거 없이 전부 잘 풀었습니다. 그땐그땀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사를 듣는가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10시간도 아닙니다.

매일 3시간씩만 이렇게 공부한다면 두세 달 뒤, 해당 과목의 성적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19수능 때도 1등급을 맞았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이후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진 못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다만, 전과목적으로 **진동하는 점수를 안정시킬 방법을 몰랐습니다.**

19수능 국어는 4등급이 나왔네요.
많은 과정이 있긴 했지만, 뻘하죠.

결국 쌤 삼수를 하게 됩니다...

삼수 : 20수능

- 2월 중순 ~ 6월 : 기본 공부

확실히 김동욱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큰 성적 향상이 있긴 했으니 삼수 때도 김동욱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연필통 매일 열심히 풀면서요. 작년에는 그냥 내키는 대로 풀었다면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과목적으로 학습효과를 고려한 빈틈없는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매주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목적으로 2등급은 베이스로 나오고
1등급은 6할의 확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시험을 봐도 **서울대 하위과는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더 효율적일지.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효율성을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메타인지는 조금씩 성장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어에서 뭔가 방법론적으로 더 나아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 책 구성이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아 했던 공부를 반복하는 느낌이 컸죠.

따라서 국어 공부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고
이원준 선생님의 '브레인 크래커'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 7월 ~ 9월 : 상한선 올리기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 독해 방식에는 혼란이 옵니다

그윽그윽로만 읽어왔던 제가 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구조 독해를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6월 모의고사 때 그 타격이 있었고 이후의 공부엔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7월까지 독서 브레인크래커 두 권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구조도를 체화시키고자 매일 거르지 않고 스키마를 세 개씩 꼼꼼히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도를 도대체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을지는 감이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계속 2~3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9월 모의고사는 다가오고 계속 브레인 크래커만 붙잡고 있을 순 없기에, 구조도 그리는 게 좀 적응이 되면서는 비기출인 그릇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수를 시작하면서 **6모 전엔 공부 실력을, 6모 이후 9모 이전엔 과목에 대한 실력을, 9모 이후엔 실전력을** 기르는 계획이 있었기에 고난도 N제로 일단은 넘어간 것입니다. 한 달 정도는 그릇을 꾸준히 푸는 데에 시간을 쏟았고 조금 이따 서술할 EBS 공부로 인해 독서를 조금 소홀히하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공부에 **슬럼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중 선생님의 독서 진도배기 강좌가 대박을 터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제 원리를 생각하고 글의 구조와 전개 의도를 파악해보란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이지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많은 강사들도 하지만 직접 글에서 찾아보며 보여주는 강의는 제 기억에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재종 강사님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강의였죠. 이때부터 조금씩 기출 분석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중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본 결과 성적이 떨어진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독해의 가장 기본은 이해이고 그냥 읽는 것입니다.

구조독이니 발췌독이니 해도 가장 기본은 그저 읽고 이해하는 것.

구조에 신경 쓰고 잡다한 스킬을 쓰는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릇을 시작한 이후에도 스키마는 하루에 하나정도씩 꾸준히 그렸지만, 이 시기에 저의 독해 방식은 그윽그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간의 독해 방식에 대한 깨달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매번 독서 지문 위에 독해 중 의식해야 할 태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 세 줄입니다.

호기심 : 미시적으로 이해, 거시적으로 스키마

이항대립 :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대비되는가?

문제의식 :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세 줄은 김동욱t 유대종t 이원준t를 들으며 배운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램t 수업을 파이널 때 들으며 태도가 하나 더 추가되긴 합니다 : **정보의 역할**) 물론 처음엔 이렇게 써 놓고 위의 태도를 써야하는 걸 까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니, 태도는 자연스럽게 뇌에 안착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대부분의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독서를 위주로 설명해 왔는데,

사실 6월 전까지는 이렇다 할 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을 살리기 위한 문학 공부를 하였죠.

6월 모의고사까지도 저는

문학에서 35분을 썼고 25분 동안 독서 두 지문 반을 풀어왔습니다.

EBS 정리도 안했고 기출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저는 주로 독서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푸는 데도 삼수 초기에 계속 1등급이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풀지 않길 바랍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은 후 국어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35분동안 문학을 푸는 게 그렇게 많이 잘못되진 않다고 생각하였고 EBS도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때 까진 탐구와 수학만 EBS를 조금 건드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현실적으로 시간 단축을 위해선 "EBS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7~9월은 EBS를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문제도 풀면서요.¹²

유대종 선생님의 OVS로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처음엔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감이 도저히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써야 집중이 되는 타입이라 문학을 풀 때도, 독서를 풀 때도 지문에 표시를 하며 읽곤 합니다. 그렇지만 OVS엔 이미 뭘 추가할 것이 없이 좋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의 고민이기도 했을 겁니다.

전 힘들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전문을 타이핑하였고, 해석 및 분석도 본문 밑에 타이핑하였으며, 책에 정리된 내용도 제가 다시 재구성하여 타이핑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석 및 분석은 1차로 혼자서 최대한 해보았고 2차로 교재의 설명과 비교해가며 수정하였습니다. 강의는 식사시간에 보면서 복습용으로 들었고요.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수십 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백배 낫다는 것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저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꾸준히 했습니다**

¹ 참고로 문학만 OVS로 정리했으며 독서와 화작문은 EBS교재 문제를 풀지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연계율은 실모 풀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² 물론 이 얘기는 지금과는 좀 거리가 있죠. 문학 연계 공부 내용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넘겨주세요.

한창 EBS 문학 작품들을 정리하며 공부를 하던 중,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인 6월 모의고사를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의 해설강의를 듣고 오르비에 올라온 해설지를 보며 무엇이 문제였나 짚어 보았습니다.

이때 **피램의 6평 해설지**를 만나게 된 건

제 세 번째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구어체로 서술한 그 형식에서 1차 충격을 느꼈고, 철저히 실전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해설을 전개하는 내용에 2차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 해설지는 이래야지

제가 보았던 거의 모든 해설지는 그저 답이 왜 답인지를 서술할 뿐 '어떻게'를 설명해준 적은 없습니다. 인강은 이를 종종 충족시켜 주었지만 해설지는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도 그럴만 한 게 그들이 쓰는 해설지는 보통 강사 본인이 아닌 연구조교들이 쓸 테니까요.

하지만 피램의 6월 모의고사 해설지는 저자가 직접 쓰는 해설지였기에 저의 니즈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팩트만 짚어라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보기>를 기준으로 독해해라

사실 모두 들어본 말이지만 해설지에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적용하였기에 더욱 직접적으로 와 닿았고 이때 저의 문학 작품 해석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문학을 8분이나 줄인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을 알고 들어가기에 시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라, 해석력 또한 올라갔기에 정확도와 속도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해석력 즉 분석력이 올라가니 문제를 보는 시선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문학 풀이 시간이 줄은 걸 확인한 모의고사를 피드백하며, **문학은 <보기>와 선지만으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전에 들었던 최인호 선생님의 문학 풀이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최인호 선생님의 문학 풀이법을 접했을 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이라 생각되어 무시하였지만, 스스로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엔 매우 통찰력 있고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국어 공부는 두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적과 별개로 저의 공부는 정말 '공부'였습니다. 기출에 대한 안목이 급상승하여 선지 구성 방식이 보이고 지문에 쳐진 밑줄(㉠_㉡_ 등의 밑줄)이 왜 그 부분에 쳐져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등 기출에 대한 공부 거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모든 공부거리가 저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능 공부가 아니라 기출을 하나의 연구 거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억지로 공부하려 버텼던 세 시간이

이젠 어느새 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서, 문법, 화작, 과탐, 수학 평가원 기출에도 적용되었고 정말 한동안은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게 비통할 정도로요.

9월 모의고사는 2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문학은 26분이 걸려 다 맞았고 아마 화작문 실수가 아니었으면 1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전 적어도 1등급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상하죠?

하지만 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의 큰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 실전 연습을 안했습니다. 화작문을 몰라서 틀릴 리가 없죠.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기에,

우린 화작문에서 틀린 두 문제와 독서에서 틀린 두 문제를 다르게 대하죠.

아직 실전 연습을 안 했기에 슬퍼할 필요도,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 10월 ~ 수능 : 하한선 올리기

저의 재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건 바로 철저한 실전 연습의 부재입니다.

수능 당일엔 아무리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대개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며, 낮선 의자 낮선 책상 낮선 공기는 본인이 느끼는 긴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또한 18수능과 19수능, 그리고 격변의 20학년도 모평들(적어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을 모두 겪어본 저로서는 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함부로 예측하여 대비하는 상황의 스펙트럼을 좁게 하는 건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해왔던 N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시험 날의 그 느낌, 채점할 때의 불쾌한 감정과 공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버틸 수는 있습니다.

철저한 실전 연습을 통해서요.

집에서 학원에서 혼자 보는 모의고사는 수능날 우리가 받는 패널티를 *눈꼽만큼*도 재현해 줄 수 없습니다.

OMR카드도, 가채점표도 안 쓰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눈치 안 보고 다리 떨며 보는 모의고사는 안 보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피램 선생님의 한수 파이널 무료 특강을 듣게 됩니다.

수업 한 번 만에, 대치 오르비의 시험실(교실) 환경(책상이 좁고 불편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컨텐츠, 선생님의 강의력에 확신을 얻었고 수업 후 바로 부모님께 말씀 드려 파이널 정규반을 수능날까지 다니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삼수는 스스로 벌여 해결했습니다. 재수 후 겨울에 돈을 모았고 2월부터 7월까지 매주 8시간이상 알바를 하였습니다. 다니던 독재 비용은 근로장학생을 하며 해결했고요. 때문에 현장을 등록하는 건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어서 저에게 큰 결심이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한수 파이널 모의고사를 들을 때 저는 재수 때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6월 때의 저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7~9월 사이의 기출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들과 분석력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전연습은 실모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재수 때의 저와 삼수 때의 저는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 베이스가 탄탄하게 있다는 가정 하에,
화작문은 실전연습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학년도 기준)

이는 사실 피램t의 수업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화작문을 틀리는 이유는 대개 실전 상황에서 실수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엔, 피램t와 같이 풀었던 한수 모의고사와 파이널 기간 혼자 풀었던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틀린 화작문은 거의 모두 이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총 10번의 실모를 풀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에 현강이 있었고, 그날을 수능날이라 생각하며 매주 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엔 어떤 유형을 틀렸고 이걸 저저번 주에도 틀렸구나.”

“이걸 틀린 이유는 끝까지 읽지 않아서이고 이와 같은 원인으로 틀린 다른 문제를 보니까 이런 유형에선 끝까지 읽지 않는 경향이 있구나.”

“이건 이렇게 풀면 편한 문제인데, 이런 식의 선지 구성이 기출에도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OMR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 이때는 OMR을 쓰면 refresh되어 오히려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겠구나.”

“가채점표는 이렇게 쓰면 나한테 유리하겠지?”

정말 매주 실모를 풀면서 **모든 변수를 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시험은 모든 과목이 비슷한 형식으로 보기에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6월에 메타인지를 높였고 7~9월에 실력을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아진 실력으로 본 시험에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본 시험보다 실수나 오답의 유형이 훨씬 적어, 실전력이 상승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6월 9월 모의평가는 계속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실모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하고 결국 당해년도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은 그 해에 본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일 테니까요. 20.09.점유소유 지문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웠기에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해설을 써보면서, 이때 생긴 질문들을 피램선생님께 계속 여쭙 보면서, 실력을 다듬어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지스트 해리케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실모를 10개 풀었다고 했지만,
사실 10개가 아닙니다.

일요일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출을 선별하여 다시 풀어보았고 여기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 실모에 또 적용
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날 실모 현장에서 써도 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모를 위한 실모를 푼 것입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4~5주차쯤 지났을 땐 정말 필요한 태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험장에 가져갈 태도 정리본을 과목 별로 나누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워드로 정리하고 이를 인쇄한 뒤, 실모와 기출을 통해 검증할 때마다 빨 태도들은 빼고, 더
할 태도들은 더하였습니다.

올린 파일은 수능날 가져갔던 태도 정리본의 완성형입니다.

사실 10회분의 실모를 풀면서 1등급도 많이 나왔지만, 4등급까지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한 번은 2주연속 4등급 대의 점수가 나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실모 점수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4등급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번주의 약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고 연습용으로 푼 실모에서 1등급이 나와도 막상 현장에서 시험을 보면 만족
하기 힘든 점수가 나온 겁니다. 시험장에서의 변수에 당한 거죠.

그러나 마음 한 켠으론 기뻐했습니다.

남들은 발견하지 못 한 채 운에 기대게 될 변수를 저는 미리 인지하고 극복하게 될 테니까요.

더 독하게 몰아쳤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분석했습니다. 실수가 생겼다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 독해 심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공부 실력은 더 상승했습니다.

시작을 할 땐 1등급이었고 중간에 진동하는 퍼포먼스를 극복하여, 마지막 10회 때는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모를 위한 실모를 풀 때도 마지막 즈음엔 이감이 90점을 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수능 전 날엔 여태 풀었던 실모들을 쭉 훑어보며 오답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출문제지를 훑으며 평가원에 대한 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여태 정리한 독해태도가 옳은지, 빈 틈은 없는지 점검도 하고요.

지문 하나 하나 구조를 떠올리고 출제 포인트를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기출문제지 두 권을 보았는데 **채 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 년 중, 가장 평가원에 대한 감이 돌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수능 날

참 신기하게도,
3번째 수능이지만 떨림은 배가 되었습니다.

수능 2주전엔 처음으로 긴장해서 밤을 새웠고 배도 아프고....

원래 저는 항상 국어 시험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데,
수능날엔 너무 긴장하여 시험 시작도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엔 새로운 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지겹게도 많이 본 독서 지문 두 개와 화작 한 세트를 들고 갔으나
결국 본 건 그간의 독해법을 정리한 종지와 화작 지문 하나 정도였습니다.

예열은 전혀 안됐죠.

8시 40분 국어 시험 시작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6월 9월과 크게 다른 신유형은 없었습니다.
6월 9월에서 출제 방식의 낯설음에 크게 당했기에 준비한 공부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한 나머지 처음 5분간은 지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문학 화작문 독서 순으로 풀니다.

항상 문학을 길어야 25분 내에 끝내는데, 수능에선 처음 5분간 헤매어서 9시 5분에 일단 문학 1회독을 마치고
9시 25분에 다시 문학을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헛갈리는 게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독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제가 개발한 지문 필터링 기술이 먹히는 지문이었습니.

보기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 독서를 30분이 채 안걸리게 해결하였고 마지막 3분간 헛갈렸던 문학 문제들을 고쳤
습니다.

정말 그 어떤 실모를 풀고 나서와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통 망했다 잘봤다 하는 감이 오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망한 건가...?"

좌절을 막 시작하려던 이때,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설사 망했더라도 전혀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독서 하나, 문학 하나로 94점(1등급 컷 91점)을 맞게 됩니다.

제가 수능 때 결국 94점을 맞게 된 것은 철저한 실전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 재수 때와 똑같이,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수험생이 되어있었을 겁니다.

이런 실전 연습이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비의 대부분의 N수생이 그렇듯이,

수능 때 미끄러져 수능을 다시 보게 되는 거라면 철저한 실전 연습은 필요조건입니다.

Epilogue

모든 과목을 잘 본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탐구과목에 가장 자신 있어, 여기에 덕을 보며 대학을 갈 줄 알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삼수를 시작하며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일 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재수 때 경험했습니다.
실력이 점수를 무조건 보장해주진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후회는 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아 붙였습니다.

수험생활의 막바지에 들어서도 완성되지 못한 실력을 가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더 독을 품고 했습니다.

이젠 이게 너무나 큰 자산이 되었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없다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게 공부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IST해리케인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과 20학번 재학
피랩 교재 오프라인&온라인 검토진
파급효과 물리학1 검토진
자체 제작 교재 10권 내외 보유
경력 1년차, 40명 내외의 누적 수강생
모의고사, 칼럼 등 다수의 학습자료 제작 및 검토
경력
국어 :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수능 국어 : **Kane's Analysis**
본질과 통찰, 이항대립, 부분과 전체 : **Kane's
Insight**
기출 분석 및 실전 실력 기르기
물리학 : 물리 I, II 내신 1등급
19 수능 물리 I 50 / 20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 II 1
등급
물리 경시 및 연구 대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

[필독] 여러 공지사항들

<https://orbi.kr/00034607455>

[케인의 2020년 칼럼 정리]

<https://orbi.kr/00034624645>

[공지] 케인의 2021학년도 콘텐츠를 이용하신 분을 찾습니다!

<https://orbi.kr/00034674631>

칼럼이나 자료를 보고 생긴 질문들이나, 본인의 학습 방향 등을 상담을 통해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자유롭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케인의 콘텐츠 후기 이벤트 참여 또한 아래의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 (쪽지로 하면 추후 상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GeS8oOc>

인스타 DM : gist_harrykane

- **서울 강남역 부근 그룹과외**(1월 21일 개강 예정)를 진행합니다
문장부터 지문까지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합니다.
암묵지가 명시지가 되는 강의입니다. 이 또한 문의는 위의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